

재경관리사는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실무 전문가임을 인증하는 자격증입니다.

전산세무1급 자격증이면 회계, 세법의 전문가라 자부할 수 있지만, 일반회계기준으로 공부하다 보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에 적용되며 상장법인이나 규모가 큰 기업에서 적용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재경관리사의 응시료는 70,000원이므로 “ONE SHOT, ONE KILL”의 각오로 한 번에 합격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합격의 당락은 재무회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락이 나오면 안됩니다.

전산세무 1급 합격자라면 재무회계 60%, 관리회계 30%, 세무회계 10% 정도의 시간을 안분하여 공부하여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경관리사 시험은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공개된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시면서 최종적으로 점검하시면 됩니다.

재경관리사를 합격하고 본인이 회계와 세법의 최고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의지와 흥미를 갖고 있으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증 도전하기를 권합니다.

도전하십시오. 도전해서 실패했다고 인생을 실패한게 아닙니다.

도전하는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2023년 10월

김 영 철